

지역민 빚 갚을 돈 없어 카드로 '돌려막기'?

통계청 '개인카드 사용 현황'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서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 교환율 등 연이은 악재를 맞닥뜨린 지역민들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5년간 개인 카드 사용액 증가율과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국 7대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3일 통계청 '개인 카드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광주지역 개인 신용·체크카드 총 사용금액(현금서비스 제외, 해외사용금액 포함)은 2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9%(2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남은 19조3000억원에서 21조8000억원으로, 1년 새 13.0%(2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광주·전남 개인 카드 사용액은 통계를 낸

광주 1~11월 카드 사용액 23조7000억...5년 전보다 48.1% 급증

광주·전남 가계대출 60조...광주 연체율 25개월째 특·광역시 최고

지난 2017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광주와 전남지역 카드 사용액은 각각 전국 7대 대도시와 9개 도(道)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광주 카드 사용액은 지난 2017년 16조원에서 지난해 23조7000억원으로, 무려 48.1%(7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전(43.3%)과 대구(40.7%), 인천(40.0%), 부산(39.5%), 서울(37.9%), 울산(33.3%) 등 다른 특·광역시 증가율

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전남 카드 사용액은 지난 5년 새 58.0%(13조8000억원→21조8000억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율은 9개 도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전남에 이어 충북(56.4%), 경기(54.1%), 강원(51.8%), 충남(50.0%), 전북(46.8%), 제주(45.8%), 경북(45.3%), 경남(42.2%) 등 순으로 높았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4월 60조원을 돌파

했다.

은행과 비은행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0월 기준 광주 39조8362억원·전남 20조9604억원 등 60조7966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지역민 가계부채 사정이 악화되면서 광주 시민들의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25개월 연속 특·광역시 최고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광주 0.31%·전남 0.13%로, 1년 전보다 각각 0.09%포인트, 0.04% 증가했다.

광주 10월 연체율은 전국 평균(0.22%)을 크게 웃돌면서도 특·광역시 최고를 나타냈다.

광주 연체율이 특·광역시 가운데 최고를 기록한 건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넘게 지속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신보, 상금 전액 기부 부패방지 시책 평가 우수

전남신보보증재단은 전남도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받은 상금 150만원 전액을 지역사회에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신보는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 성적을 받았다.

전남신보는 상금으로 마련한 쌀 360kg을 순천시 푸드뱅크를 통해 결식 아동과 홀몸 노인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정양수 이사장은 "전남 쌀을 구입해 농가를 돕고 소외계층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이번 기부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전남신보는 지난해 10월 쌀값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전남 쌀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현실 반영 못한 안심전환대출 '흥행 저조'

광주·전남 5713억 등 9조4787억 접수...공급 규모의 38% 그쳐

'대출 갈아타기' 정책 금융상품인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5713억원(4471건) 규모가 접수됐다.

주택금융공사(HF)는 1·2단계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마감 결과 총 신청액이 9조4787억원(7만4931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총 신청액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25조원)의 약 38%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로 신청 현황을 보면 광주 3572억원(2616건), 전남 2141억원(1855건) 접수됐다.

금액 비중으로 따지면 광주는 3.8%, 전남은 2.3%를 차지했다.

경기가 34.8%로 가장 많았고, 인천 9.1%, 서울과 부산 각 7.6% 등의 순이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고정금리 정책모기지(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 1단계 신청에서는 모두 3조9897억원(3만9026건) 규모가, 11월 7일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된 2단계 신청에서는 총 5조4890억원(3만5905건) 규모가 각각 접수됐다.

1단계 신청대상은 주택가격 4억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대상 주택가격이나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애초 공급목표에 턱없이 모자라는 신청이 이뤄져 2단계 신청에서는 주택가격을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1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고 대출 한도 역시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높

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급등한 주택가격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외면을 받았다.

주요 분석 결과 안심전환대출 신청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1000만원이었고, 4억원 이하가 전체의 62.6%였다.

신청자 평균 소득은 4500만원이었고, 전체의 81.3%는 소득 70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신청 건수 중 지난해 말 기준 총 6조3000억원의 대출이 전환 완료됐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대출 실행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기존의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급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증자리론'을 1분기 중 출시해 1년간 한시 공급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한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이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농관원,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하 전남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과 제수용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설 선물·제수용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업체, 농축산물을 도·소매하는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을 점검한다. 통신판매업체도 점검 대상이다.

외국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오는 20일까지를 일제 점검 기간으로 정해 원산지 기동반과 사이버 단속반 등을 투입한다.

우선 11일까지는 사전에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한다.

12·20일에는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현장 점검은 신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대응형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고, 사이버 단속반 활동을 대폭 확대한다.

설 대비 원산지 단속 기간 점검 항목에는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 표시사항 적정 여부,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이력제 및 지리적 표시제 이행 실태 등이 포함된다.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후속 조치한다.

전남농관원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요 정보를 누리집에 제공한다.

황규광 지원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소비자 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해 대상 업체 현장 점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의 의심될 때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중기·근로자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듭시다'

광주·전남·전북 중기인 신년인사회

광주·전남·전북 중기기업인들이 3일 광주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고 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함께 만들기로 다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3 호남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자치단체와 국회, 중소기업계 등 각계 450여 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이병훈·신정훈·김희재·김경만·이유빈·조오섭·윤재갑·양항자·민형배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는 이날 호남권을 시작으로 영남권(9일), 수도권(10일), 충청권(11일)에서 연이어 개최된다.

김기문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바란다"며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왼쪽 3번째)가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자치단체장 등 참석자들이 새해 출발을 알리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며, 지자체와 국회에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주 기업현장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와 84개 기초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가 제정된 만

큼, 지역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기술 개발, 마케팅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신보 지난해 3000억 신규 보증 대출

이자지원 2037억 달해

광주신용보증재단(광주신보)은 지난해 3000억원 규모 신규 보증 대출을 지원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연말 기준 광주신보가 지원한 보증은 총 1만8121건, 3008억원 규모다.

▲광주시 골목상권 특례보증·청년창업 특례보증 등 786억원 ▲5개 자치구 특례보증 179억원 ▲은행 협약자금 및 중앙회 특례보증 2043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또 신규 보증 공급금액의 68%에 해당하는

2037억원은 이차보전(이자지원) 자금으로 지원했다.

코로나19가 국내 확산한 2020년 이후 광주신보는 총 9만87건, 2조453억원 보증 지원을 했다.

김귀남 광주신보 이사장은 "재단 모든 임직원들이 함께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2023년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신속한 보증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힘 못쓰는 코스피...장중 2200선 붕괴

외국인 매수에 낙폭 줄여

코스피가 3일 기관 매도에 나흘 연속 약세를 보이며 2210대까지 후퇴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99포인트(0.31%) 내린 2218.68에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5.31포인트(0.24%) 오른 2230.98에 개장한 뒤 장중 2200선을 내줬다가 점차 낙폭을 줄였다.

코스피가 장중 22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0월 17일(2177.66) 이후 2개월 보름 만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3475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734억원, 40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보다 2.6원 내린 1270.0원에 출발한 뒤 1270원대 중반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줄여 결국 전장보다 1.6원 내린 1271.0원에서 마쳤다.

이날 주가는 지난해 연말 배당락 전까지 배당을 노리고 주식을 순매수한 기관이 매도로 전환해 매물을 대거 내놓으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듯 요동쳤다.

특히 기관 중에서 연기금·은행·보험 등은 순매수를 보였지만, 금융투자가 353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아울러 정부가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로 올리기로 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오후 들어 투자 심리도 점차 개선됐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

는 장중 등락 양상을 보이다가 0.18% 하락한 5만5400원에 마쳤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2.34%), 의약품(-2.02%), 음식료품(-1.46%) 등이 하락했고 통신업(0.91%), 종이·목재(0.58%), 전기가공업(0.55%) 등은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44포인트(0.51%) 오른 674.95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지난해 10월 17일(664.83) 이후 2개월여 만에 장중 670선이 무너졌다가 막판 기관 매수 덕에 상승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기관은 142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으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4억원, 182억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시총 상위권에서는 대부분 종목이 상승했다.

카카오게임즈(2.83%), HLB(2.51%), 에코프로(3.64%), 펠어비스(1.36%), 스튜디오드래곤(1.79%) 등이 올랐으며 에코프로비엠(-0.21%), 셀트리온헬스케어(-1.57%), 엘앤에프(0.59%) 등은 내렸다.

/연합뉴스

한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18.68(-6.99)
↑ 코스닥	674.95(+3.44)
↓ 금리(국고채 3년)	3.661(-0.121)
↓ 환율(USD)	1271.00(-1.60)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위해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고성선·앞줄 왼쪽 8번째)와 NH농협은행 광주본부(본부장 박내준·왼쪽 9번째) 임직원, 광주지역 농협 상임이사·전문 등 100여 명이 3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에 모여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시행을 위한 홍보 행사를 열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